

연구위원, 손지우 / 3773-8827



관련 뉴스 요약 “이참에 디즈니+로 갈래” 넷플릭스에 뿔난 전세계 이용자들

A pie chart illustrating the distribution of streaming services used by respondents. The chart is divided into six segments, each representing a different service and its corresponding percentage of the total. The segments are: Netflix (34%, red), Youtube (20%, light grey), Hulu (11%, dark red), Amazon Prime video (8%, medium grey), Disney+ (4%, pink), and Other (23%, dark grey). Labels for each service and its percentage are placed around the chart, with lines connecting the text to the respective segments.

Streaming Service	Percentage
Netflix	34%
Youtube	20%
Hulu	11%
Amazon Prime video	8%
Disney+	4%
Other	23%

- 넷플릭스가 비밀번호 공유를 통한 ‘몰래 시청’을 단속하기 위해 본인 계정 확인을 요구하는 등 제약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 반발 발생 중
- 넷플릭스는 약관 상 공유 대상을 가족 구성원 혹은 동거인으로 제약을 시켜 놓아 지인과의 아이디/비밀번호 공유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상태
- 그럼에도 지인과의 아이디 공유는 성행했음. 이번 제약 발표에 소비자들 사이의 이탈 움직임이 발생 중. OTT 업계 내의 점유율 지각 변동 가능

## Briefing

- 글로벌 주요 전통 산업중에 하나인 농업 부분의 테크 접목이 가속화 중. 자율주행 등 기술 침투 기대

- 페이, 푸드, 교통 등 전반에 사업을 영위중인 동남아 대표 플랫폼 그룹의 SPAC 상장 기대감 확대